

| 본부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7 동서대학교 국제협력관 8F TEL 051-320-1900~1 FAX 051-320-1902 E-MAIL japancenter@dongseo.ac.kr

|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신문로1가) 광화문오피시아 2331호 TEL 02-723-2270~1 FAX 02-723-2272

## 비즈니스 브레이크스루 대학과 MOU 체결

- 한일 온라인 공동수업 '한일비교문화론'을 개시 -

동서대는 온라인 강의와 토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교육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일본의 비즈니스 브레이크스루(BBT: Business Break Through) 대학(총장: 오마에 겐이치 씨, 이하 BBT대)과 국제교류협정 조인식을 3월 24일(화) 동서대에서 개최하였다. BBT대는 2005년 일본 문부과학성으로부터 인가를 취득, 경영대학원으로서 출범하였다. 2010년에는 일본 최초로 경영학 학사 학위를 100% 온라인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경영학부를 신설하는 등 일본의 새로운 고등교육모형을 제시하는 사이버대학교이다.

BBT대와의 협정을 통해 올 4월부터 시작한 두 대학 간의 첫번째 공동수업인 '한일비교문화론'에는 28명(동서대 13명, BBT대 15명)의 학생이 선발되어 수강했다. 온라인 강의와 토론에 필요한 기본 콘텐츠는 BBT대학이 개발한 'Air Campus'라는 온라인 교육플랫폼을 이용하고 수업은 모두 일본어로 진행되었다. 이번 온라인 강의는 한국인의 일본관, 일본인의 한국관, 한일 의식주 문화, 음악, 부산 속 일본문화, 게임, 종교 등 다양한 주제로 두 대학 교원 및 초청강사가 담당했다.

또 매 강의가 끝난 뒤에는 두 대학 학생들 간의 온라인 토론이 열렸다. 온라인상에서 일본어로 이루어지는 토론수업을 처음 접한 동서대 학생들은 처음에는 다소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 했지만, 회를 거듭하면서 점점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져, BBT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중에서 가장 많은 질의응답을 주고 받은 수업이 되었다. 평소 국제교류 경험이 풍부한 동서대 학생들도 "사회인 학생들이 많은 BBT대의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경력을 가진 학생들과 토론할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말했다.

매주 새로운 주제로 진행되는 온라인 강의와 토론 이외에도, 5월에는 부산, 7월에는 도쿄를 상호 방문하는 필드워크도 실시했다. 또 한 학기 수업의 시작과 끝에는 부산과 도쿄를 원격 화상 시스템으로 연결하여 온라인 미팅과 필드워크 조사결과 발

표회를 가지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5월 부산 필드워크에서는 ①'부산 도시문화의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로 동서대 학생이 일본과의 역사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을 안내하는 파트와, ②학생들이 수업에서 배운 주제 가운데 스스로 조사계획을 세우고 그룹조사를 실시하는 파트로 나누어 진행됐다. 부산 필드워크에서는 주로 BBT대 학생들이 관심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 동서대 학생들이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조사결과는 원격시스템을 사용하여 최종발표회를 통해 보고했다.

한편 7월 도쿄 필드워크에서는 동서대 학생들이 조사계획을 세우고 BBT대 학생의 도움을 받아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한국과 일본은 학기 시작 시기가 달라, 도쿄 필드워크에서 얻은 조사결과는 현지에서 구두로 간단하게 발표하고 귀국 후 리포트 제출 형식으로 이뤄졌다. 또 도쿄 필드워크에서는 기업탐방과 문화탐방 등의 시간도 마련되었다. 기업 방문은 일본 '라쿠텐'과 '인텔리전스'를 방문하여 일본 기업의 글로벌화 전략과 일본 취업상황에 대한 세미나 참가와 더불어, 사내 견학을 하면서 일본 기업의 복리후생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일본 취업에 관심이 있는 동서대 학생들은 한

국에서 얻기 어려운 일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동서대 학생들은 "사회인 학생 중심인 BBT대 학생들의 높은 학습의욕에 놀랐고, 많은 자극을 받았다", "수동적인 수업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일본인과 토론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 BBT대 학생들은 "미디어 보도 등의 영향으로 인해 상대국에 대한 오해도 있었지만, 동서대 학생들과의 토론을 통해 서로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모국어가 아닌 일본어로 열띤 토론이 가능한 동서대 학생들을 보고 많은 자극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수업으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두 대학의 학생들은 입을 모았다.

한일비교문화론 수업은 봄학기에만 개설되어, 다음 수업은 2016년 4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다음 수업에는 필드워크에 1기 학생들과의 교류 시간을 마련하는 등 수강생들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도 두 대학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두 대학은 이번 협정을 계기로 앞으로는 교직원교류 및 학생교류와 학점교환, 학술자료 및 기타 정보교환 등 다양한 면에서 걸쳐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일본 다도 우라센케(裏千家) 15대 종가 센 겐시쓰(千玄室) 대종장  
평화기념 헌다식 · 강연회 개최



일시 2015년 4월 23일(목) 14:00~16:00  
장소 동서대학교 뉴밀레니엄관 2층 소향아트홀

4월 23일(목) 동서대 소향아트홀에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다도 우라센케(裏千家) 15대 종가 센 겐시쓰(千玄室) 대종장 평화기념 헌다식 · 강연회'가 개최되었다. 이 날 행사는 3부로 구성되어, '제1부: 평화기념 헌다식', '제2부: 화합의 다회', '제3부: 특별강연 및 다도시연회'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약 500명이 넘는 내빈이 참석하여 일본 다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개회사에서 '현대 문명의 미래는 평화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기본이념 아래, 새로운 다도의 모델을 확립한 센 겐시쓰 대종장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한일 문화의 상징인 다도에 대한 오늘 행사를 통해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한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회사에 이어 마쓰이 사다오 부산일본국총영사는 축사에서 "일본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다도를 통해 세계 평화와 한일우호를 위해 공헌해 온 대종장의 강연을 듣고, 특히 젊은 세대가 그 뜻을 이어나가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1부: 평화기념 헌다식'에서는 '평화기념'이라고 쓰인 족자(簇子)가 걸려 있는 제단에 센 겐시쓰 대종장이 직접 낸 차를 올렸다. 제단 양 옆에는 한일 양국의 국기를 걸어 놓고,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한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우호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헌다식을 거행했다. 이어 '제2부: 화합의 다회'에서는 대종장이 주인공 역할을 맡아, 이 날 행사에 참석한 귀빈들에게 전통적인 다도방식으로 차를 내어 주었다. 장제국 총장, 마쓰

이 총영사 외, 한국중요무형문화재 황수로 궁중채 화장, 일본인회 구보타 회장 등과 한일 양국의 귀빈들이 대종장이 내어 준 차를 서로 돌려가며 마셨다. 이 다회에는 차 한잔을 손님들이 나눠 마시도록써 일미동심(一味同心)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이 사회와 국가 간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뜻이 담겨 있다.

'제3부: 특별강연 한 잔의 차 평화를 염원하며'에서는 센 겐시쓰 대종장의 특별강연(아래 내용요약 참조)과 '박차평점전(薄茶: 열은 차(말차)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는 다도시연회가 열렸다. 다도시연회 해설을 맡은 우라센케 구라카즈 소카쿠(倉斗宗覚)씨는 "박차평점전은 입문 후 가장 먼저 배우는 기본 작법으로, 하나 하나의 예법이 간소한 만큼 연습을 어느 정도 하였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작법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차를 대접하는 주인과 그 차를 마시는 손님들의 예법과 그 의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다도시연회 종료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도 국자(히사쿠: 柄杓)를 다루는 방법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3부 구성으로 열린 이 날 행사는 참석자들을 위한 다도체험을 끝으로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제3부: 특별강연 '한 잔의 차 평화를 염원하며' 요약>

중국 당대(唐代)부터 마시기 시작한 차는 당나라의 문인 육우(陸羽)가 쓴 『다경(茶經)』이라고 하는 다도의 고전을 통해, 차가 몸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차를 마시는 습관이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한시를 보면 당대에는 차에 관한 시가

많은데 이는 차를 자주 마셨기 때문이며, 송대(宋代)에 들어서면 술에 관한 시가 많아지는데 당시 술이 인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후 한반도로 전해진 차는 고도의 찬란한 문화를 형성한 백제가 신라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뒤 백제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는 과정에서 일본으로도 전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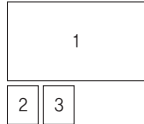
내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차에 관한 수업을 하게 된 것은 서울 중앙대 객원교수로 초대받았을 때였다. 그리고 중앙대 대학원에서 육우의 『다경』과 일본의 다도, 그리고 한반도의 문화가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대한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어릴 때 한반도에서 온 친구들과부터 아리랑을 배운 적이 있는데, 친근함을 느끼는 한국에서 서울뿐만 아니라 이곳 부산의 대학에서도 차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여긴다.

다도에서는 주인과 손님이 필요하다. 오늘날 많은 제도와 인간관계에는 이해관계가 동반되지만, 다도에서는 그러한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다실 속에서만큼은 어떠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절대로 차별 받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손님을 대접하는 마음이며, 거기에 있는 사람이 서로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이다.

작년 인천아시아게임에 일본승마연맹 회장으로 참석하게 되었는데, 한국인의 국기, 국가에 대한 마음가짐을 보고 매우 대단하다고 느꼈다. 안타깝게도 일본에서는 패전 이후 히노마루(日の丸), 기미가요(君が代)에 대해 경의를 표하지 않는 풍조가 생겼다. 아시아게임에서 일본이 단체우승을 했을 때, 한국인도 일본의 국기, 국가에 경의를 표하고 일본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주었다. 스포츠를 통해서 다도와 마찬가지로 상대를 공경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주인이 손님을 대접하는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거기에 화(和)가 생겨나고 경(敬)이 생겨난다. 한국은 유교의 나라로 유교에서는 자신의 몸가짐을 바로잡고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다도도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점을 오늘 다도시연회를 보고 느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실마루 사이에 걸린 족자에 쓰인 '화경청적(和敬淸寂)', 이것이야말로 다도의 정신이다.

## 해방 70주년 ·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동서사랑방 5·6·7월 연속 강연 ‘동아시아 현대사에서의 한일관계, 그 역사적 의의와 장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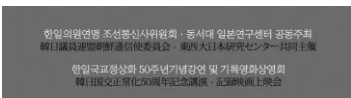


1. 공로명  
(동서대 석좌교수 · 전 외무장관)
2. 벡쇼 고로(주한일본대사)
3. 최서면(국제한국연구원 원장)

매달 1회 ‘동서사랑방’ 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일본연구센터 서울사무소에서는 해방 70주년 ·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동아시아 현대사에서의 한일관계, 그 역사적 의의와 장래’를 주제로 5·6·7월 연속 강연이 진행되었다. 5월 27일(수) 제56회 동서사랑방에서는 공로명 동서대 석좌교수 · 전 외무장관이 ‘해방(終戰) 70년 · 국교정상화 50년, 한일관계의 현상과 전망’을 주제로, 6월 29일(월) 제57회 동서사랑방에서는 벡쇼 고로 주한일본국 특명전권대사가 ‘함께 열어가게 한일의 새로운 미래(共に開く日韓の新しい未来)’를 주제로 각각 강연하였다. 7월 22일(수) 제58회 동서사랑방에서는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 원장이 ‘역사의 굴곡을 넘어서 새 한일관계의 구축을’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강연에 이은 토론회에서는 한일 양측의 참석자(전 · 현직외교관, 한일언론인, 대학교수, 연구자 등)에 의한 코멘트와 질의응답이 전개되었다.

※ 동서사랑방 ‘5·6·7월 연속 강연’ 내용은 다음 호 뉴스레터에 게재됩니다.

##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 한일의원연맹 공동주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강연 및 기록영화 상영회 ‘조선통신사 선린외교의 재조명’



한일의원연맹과 동서대 일본연구센터가 공동주최한 ‘조선통신사 선린외교의 재조명’을 테마로 한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 강연 및 기록영화 상영회가 6월 30 일(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개회식에서 한일 의원연맹 회장인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환영사를 통하여 “올해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양국 간의 실타래처럼 꼬인 문제를 풀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 갈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7월 9, 10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 일 · 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하여 양국 의회차원에서 노력해 나아가도록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벡쇼 고로 주한일본대사는 축사에서 “조선통신사는 상호 신뢰와 진심을 바탕으로 교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오늘날 양국 관계를 정립하는데 선조들의 선린외교 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라

고 말했다. 강연에서 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는 조선통신사의 의의와 역사적 배경을 청중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정 교수는 통신사는 조선시대 조선국왕의 명의로 일본의 막부장군에게 보낸 공식적인 외교사절을 일컬으며, 일본과의 관계 유지라는 외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학술 · 사상 · 기술 · 예술상의 문화교류라는 또 하나의 문화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연 후 기록영화 ‘에도(江戸) 시대의 조선통신사’를 제작한 고 신기수 씨의 딸인 신리화 NPO법인 청구(靑丘) 문화홀 이사가 기록영화의 제작경위를 설명했다.

기념 강연 및 기록영화 상영회에는 예상을 훨씬 웃돈 250여명의 많은 관람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고, 참석자들은 양국 선린외교의 아이콘으로 조선통신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구모란(국제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정치전공 박사과정  
rany81@empas.com

‘안보무역레짐(4대 국제수출통제제도와 공급망 안보)’은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가 등장한 1949년부터 약 60년 만, 2001년 9.11사태 이후 약 10년 만에 빠르게 발전했다. 본 연구는 수많은 국제레짐 중 자발적 협력체(coalition of the willing)에 불과한 위레짐의 발전 동력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했다.

이에 따라 연구는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Neo-liberal institutionalism) 시각에서 안보무역레짐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국제정치학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안보무역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의 틀을 제공한다. 둘째, 본 연구는 수출통제제도와 공급망 안보를 국제레짐이론을 통해 고찰한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으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셋째, 국제레짐이론으로서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의 적실성을 확인한다.

다만 국제수준의 분석은 인과관계 설정부터 쉽지 않고 국내요인을 배제한 설명은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제질서의 변화를 살피고 이에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해주는 데 국제정치학의 역할이 있다고 하면, 그 변화 동력을 밝히고자 한 시도에도 연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남호현(역사)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고고학과 박사과정  
m00nrabit@korea.kr

중국의 궁성건축 계획은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중축선에 건축물을 배열한 Zhou나라 식과 중축선을 벗어나 궁전을 분리시킨 Qin 또는 Han나라 식의 계획이 그것이다.

漢 멸망(AD220)후, 隨가 통일(AD589)하기 전까지 중국은 兩晉南北朝로 이어지는 혼란의 시기를 겪게되며 이 기간동안 기존의 형태에서 벗어난 다양한 궁성 형제가 발현하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기존에 배타적으로 적용되던 궁성계획 요소들이 이때부터 점차 종합적인 배치를 구성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중국과 밀접하게 교류했던 한국과 일본의 고대국가들도 중국의 선진적인 궁성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각국의 사회·정치적 배경에 따라 각기 다른 수용태도를 취한다.

6~7세기에는 한·중·일 삼국이 내·외적으로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던 때이며 이시기의 역동성들이 조우하며 만들어낸 고대 궁성들은 동북아 전체를 아우르는 상상성과 지역적 특징이 발현된 상이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본자는 이러한 발현요소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고대 동북아시아의 정치·외교적 역학관계에 대한 해명에 기여하고 당대의 역동적인 문화상에 실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츠치토리 토시키(사회·젠더)

고베대학 대학원  
국제문화학연구과 박사과정  
toshiki.tsuchitori@gmail.com

예전부터 일본에는 ‘쓰키모노’에 대한 신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쓰키모노’란 여우나 너구리 등 동물의 혼이 사람에게 빙의된다고 믿는 동물령을 뜻합니다. 쓰키모노는 ‘이에’ 단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혈연이나 혼인 등에 따라 그 수가 늘어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쓰키모노를 사역하는 ‘이에’는 ‘쓰키모노스지’로 불리거나 ‘쓰키모노스지’가 아닌 사람들로부터는 혼인 기피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민속학이나 문화인류학 분야에서는 전후부터 쓰키모노스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졌습니다. 쓰키모노가 사람에게 빙의된다는 현상이 과거에 비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쓰키모노스지에 대한 혼인차별이 없어지지 않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본은 고도경제성장기를 맞이하면서 시작된 근대화로 인해 쓰키모노신앙은 소멸되고 현재는 쓰키모노에 대한 연구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 연구테마는 쓰키모노신앙이 현재 일본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입니다. 쓰키모노신앙은 정말 소멸되었을까? 만약 존재하고 있다면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까? 만약 소멸했다면 어떠한 사회구조와 촌락구조의 변화가 그 원인으로 작용하였을까? 앞으로 이 점을 밝히기 위해 과거 쓰키모노신앙이 보고된 지역에서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쓰키모노신앙의 현황에 대해 파악할 예정입니다.



나카시마 고마키(문화·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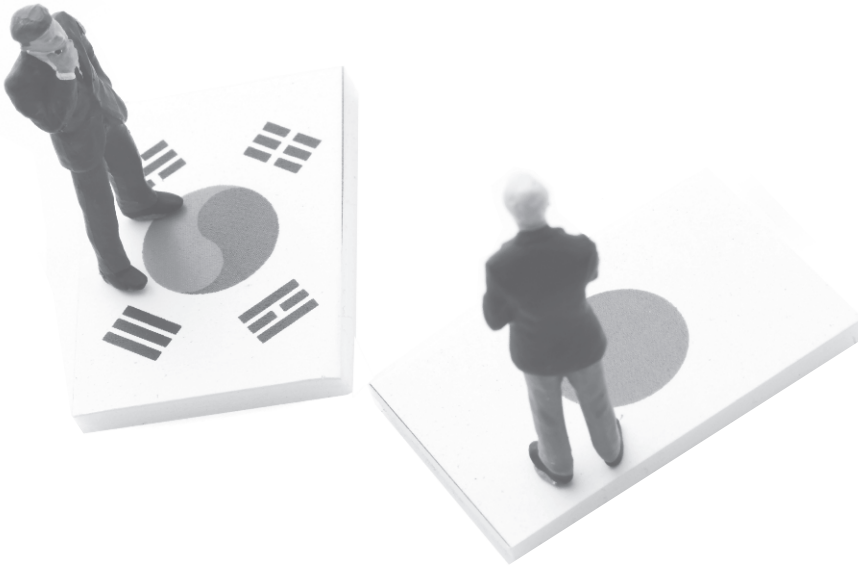
간사이대학 대학원  
동아시아문화연구과 문화교섭학전공  
k083542@kansai-u.ac.jp

오늘날은 ‘다문화주의 시대’, ‘혼합문화의 사회’로 불리고 있다. 이에 최근 미술연구에서도 세계 각국의 미술이 영향을 미치는 관계보다는 공시적으로 전개, 발달되어 온 ‘공시성’이라는 문화교섭학의 연구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근현대 미술계는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세계 미술에 대한 공통적 이해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해 화가나 그 작품도 기존의 범주로는 포괄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다.

한일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공통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하는 회화(繪畫) 표현,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기법은 수없이 많다. 공시적으로 발전한 작품군에서는 많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는 표현이나 기법 차이 등의 독자성을 발견할 수 있다. ‘공시성’이라고 하는 ‘중심’과 ‘주변’이 하나의 체계를 갖추기 위한 시도는 세계 미술사의 중심인 서양미술에 대해 그 주변에 자리매김하기 쉬운 한일의 작가와 작품,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소재를 발굴하여, 그 ‘주변’이 이뤄낸 성과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중심’을 맡고 있는 서양미술을 재조명할 수 있다.

즉 ‘중심’ 국가에 편중된 근현대 미술사 연구를 재검증할 수 있으며, 중심집중형 미술사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결과, 농밀한 공시적 전개를 펼치는 동아시아 미술이 부각되고, 동아시아 미술사의 형성과 더불어 세계미술사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 한일차세대학술포럼의 발전을 기원하며



최정기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

대학의 시간은 순환하며 바뀌는 자연의 시간을 닮았다. 두 개의 학기가 모여서 1년이 되고, 그런 일 년들이 모이다 보면 학교 구성원들이 바뀌어 있다. 그 시간의 순환 속에서 나는 지난 10여 년간 보다 풍성한 경험을 했었다. 내 전공과는 무관한 연구자들을 1년에 두 번씩 거의 정기적으로 만났으며, 학연이 없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논문심사 및 코멘트를 했었다. 또 전공과는 무관한 일본의 교수 및 대학원생들을 1년에 한 번씩 만나게 되었으며, 덤으로 이들과 조사여행도 함께 했었다. 이 모든 일들이 한일차세대학술포럼(이하 포럼) 덕분에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었다.

한일 차세대 연구자들과 할 수 있는 대학원생들이 모여서 분야별로 논문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포럼은 지난 2004년 부산 동서대학교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내가 그 모임에 처음 참석한 것은 2006년 교토의 리쓰메이칸(立命館)대학교 기누가사캠퍼스에서 열린 제3회 포럼 때부터였다. 이후 포럼은 내 연중 계획서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포럼에서 들었던 한일 양국 젊은 연구자들의 학문적 노력이 나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함께 했던 타 분야 운영위원들과의 만남이 내 삶을 풍요롭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포럼의 중요성은 구성원들 내부의 사적인 친밀함보다는 포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의 특수성에 있다. 사실 포럼이 시작된 이래 한일관계는 계속해서 악화되어 왔다. 그 와중에서 포럼은 양국 연구자들 및 젊은 세대들의 소통을 표방하고 있었다. 사실 필자는 한일관계의 악화는 양국 모두에서 특정 세력의 이익과 합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우리는 2015년 1월 초 보스턴에서 열린 '평화와 안전을 위한 경제학자들' 모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 모임의 주제는 '제2차 냉전의 예방'이었다. 당시 영국의 경제사학자 스킨델스키(R. Skidelsky)는 기조연설에서 "절박한 의료, 교육, 복지서비스를 고갈시키면서 '상상된 위험들'을 경계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쏟아 붓는 일의 사악함"을 질타했다. 그가 염두에 둔 주된 상상된 위험은 러시아 팽창주의였다. 러시아 팽창주의를 핑계로 대면서 서방 국가들은 자국의 군비를 확장하고 있으며,

상상된 위험을 근거로 국내 정치를 제약한다는 것이다.

한 사회가 외부의 적과 대립하거나 그것을 상징할 때, 정보의 흐름은 쉽게 차단되고 편향된다. 물리적 교전 시는 물론이려니와, 이데올로기의 싸움이라는 냉전의 경우 또한 그에 못지않다. 말과 사상의 긴장을 조성해야 하니, 냉철한 계산보다는 도덕적 담론, 곧 상대진영을 가능한 한 악마로 채색하고 그에 비해 이쪽은 천사로 정당화하는 일이 앞선다. 진실이 호도되고 선전이 진실로 회자되는 일이 그렇게 일상화된다.

한일관계 역시 그렇지 않을까? 실제 동아시아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필자의 의문이 우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의 핵개발 및 군비강화, 일본의 평화헌법 폐기 노력 및 군비강화, 중국의 군비강화 및 패권국가 지향, 한국 내부의 호전적인 태도와 언사들. 이런 현상들을 서로 연결지어 생각하면,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아니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배적인 세력들은 표면적으로는 서로를 욕하고 공격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서로 공생하면서 상호 의존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한일관계에서, 그리고 동아시아의 국제적 갈등과 경쟁적인 군비확충을 보면서 포럼이 갖는 역할에 보다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포럼에 참가하는 대학원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독단적이며 고정된 교리에 갇혀있는 세계관입니다. 이 독단적이며 고정된 세계관은 우리를 감금하고, 혁신을 할 수 없게 우리를 장님으로 만들고, 새로운 것에 대한 우리의 열려있는 마음을 파괴합니다. 인간이란 종(種)은 이 행성에 25만년 살아왔습니다. 그 기간은 생물이 지구에 존재한 시간과 비교하면 0.0015%입니다. 우주적인 길이에 티끌입니다." 고생물학자인 굴드(Stephen Jay Gould)의 말이다.

아우슈비츠의 비극이 생각하는 능력의 부족에서 시작되었다는 아렌트(H. Arendt)의 말을 명심하자. 우리 역시 민족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혹은 냉전의 구도에 갇혀서 생각하는 능력이 제한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포럼은 각자의 전공 영역은 물론이고 한일관계에서도 보다 열린 사고가 상호 소통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제54회 동서사랑방

이원덕 (국민대 교수 · 일본학연구소 소장)

올해는 국교정상화 50주년의 해로서, 현재 한일관계의 상황에 대한 분석 및 진단과 난국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에 대해 4개의 핵심 키워드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 키워드는 90년대 이후의 양국 관계는 이완상태로, 이에는 구조적인 배경이 있다. 먼저 국제정치 측면에서 현재 동북아시아가 극심한 'POWER TRANSITION'의 시대로 진입한 국제환경변화가 배경으로서 지적된다. 또 하나의 측면은 한일관계가 특수한 관계에서 통상적인 관계로 바뀔에 따라 문제해결 기능을 현저히 떨어뜨려 한일 관계를 교착상태로 만든 하나의 요인, 구조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의 변화인데 미들파워로서 국력신장, 정치사회의 민주화, 인권의식의 고양 및 정계의 경쟁적인 대일외교, 미디어의 역사·영토 문제의 강한 어조의 보도도 그 요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일본에 보수가 정권이 등장한 이래, 일본경제의 침체와 상대적인 위협요소로 부상한 중국으로 인해 일본 정부 및 국민은 근린 외교에 대해 관심이 거의 보이지 않으며, 긴장감, 절박감으로 대응하게 되었다. 또한 리버럴 세력이 약체화, 고령화 하면서 젊은층의 낮은 역사문제 관심도 및 거의 지리멸렬한 야당 정당정치 등의 일본 국내요소를 들 수 있다.

두 번째 키워드는 2012년 이후, 일부에서는 최악이라고 일컬어지는 한일관계의 악화요인은 이러한 구조적 배경 속에 리더들이 능숙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즉 최고 지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부재한다는 점이 한일관계를 더욱 교착상태로 만드는 요소라 할 수 있다. 한국의 대일인식에 대한 문제점 중 한 가지는 아베 정권 이후의 외교, 안전보장, 영토, 역사 측면에서 실행되고 있는 모든 언동을 하나의 패키지로 파악하려는 것으로 이른바 '일본 우경화론'이다. 일본은 점점 우익화하고 있으며 일본 우경화를 아베 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바 이는 한국에 있어 나쁜 상

황으로 위험하다는 '일본이 위협적인 존재'라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면서 한국 내에서 활발하고 있다고 본다.

일본 또한 한국이 미들 파워로 대두되면서 일본에게 불편한, 그다지 듣고 싶지 않는 말을 하는 한국에 대해 상당히 불쾌하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한국이 강한 자 세로 국제무대에서 일본 비판을 전개하는 현상이 일본 국민들을 험한 분위기로 이끄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가장 큰 요소는 이른바 '중국 경사론'인데, 한국은 중국에 밀착하여 일본을 비판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단순한 인식이 한국과 일본 관계를 심각한 교착상태로 빠지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러한 심각한 한일관계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역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모멘텀을 활용하여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허심탄회하게 터놓는 자리를 양국 정상이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일정상회담 때에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의 재확인, 위안부-징용자 문제, 미래협력 3가지 포인트가 합의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키워드는 현재의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21세기의 장기적인 관점의 한일관계의 구축에 대한 미래 비전이다. 서유럽 국가들은 미국-소련 대립의 냉전시대에 서유럽의 역사를 화해의 방향으로 이끌어 역사문제를 극복하고 서유럽을 이른바 평화와 공동번영이 가능한 스페이스로 구축했다. 이러한 것을 하나의 본보기로 삼아 한일관계를 미래를 향해 구축해 나아가는 미래비전으로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일관계를 파워 폴리틱스라는 관점에서 밸런스 오브 파워 측면에서 간주하고 있지만 사고방식을 바꾸어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동북아를 어떠한 방식으로 네트워크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라 하겠다.

## 제55회 동서사랑방

가나스기 겐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일본에서 아베 총리 취임 후에 급속히 우경화가 진행되거나 혹은 아베 총리 취임 후에 급속히 안전보장법이 강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한국에 있는데 일본 내에서의 안전보장문제는 과거 25년에 걸친 고난의 역사로, 그 같은 경위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을 한국 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역사로서의 안전보장법제'라고 강연의 테마를 정해 보았다.

먼저 평화국가로서의 일본의 자세는 변함없으며 어떤 상황이라도 일단 외교 노력을 전제로 한 안전보장법제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일본 자신의 방어력 정비와 미국에 의한 억제력이 서로 어울려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안전보장법제를 갖추고자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25년의 역사 속에서 일본은 안전확보, 국제 공헌에 마이너스가 되는 일본의 법제도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것을 어떻게든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 안전보장법제이다.

네 번째로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을 포함한 국제적 스탠다드에서 본다면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된다는 한국이 우려하는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다. 다섯 번째는 전후 70년간의 역사 속에서 일본의 안보법제는 상당히 울퉁불퉁한 상태로, 이를 평평하게 짜 맞추는 작업이 우리들이 실행하고 있는 임무이며, 일본이 다른 나라가 가능한 일을 조금이라도 가능하게 하는 상황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서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자 하는 것으로 4월에 열린 실무자 협의의 문서에서도 제3국의 주권 존중을 포함하는 국제법을 준수하며 진행한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일본의 외교는 미국과의 관계를 처리하는 과정, 특히 안전보장법에서 생겨났는데 과거 70년을 거슬러 올라가 여러 단계로 구분한 미일 외교의 계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일본의 1945년 이후 외교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대략 15년 주기로 변화해 나가는 데, 처음에는 보호자와 피보호자 관계로 51년에는 안보조약이 체결되었다. 제2기는

1960년~75년까지로 후견인과 비후견인의 관계인 시기로서 일본이 조심스럽게 국제사회에 데뷔를 도모하던 시기에 미국이 후방에서 후견인으로서 지원해 준 시기이다. 제3기가 1975년~90년까지로 '대등한 관계'라 표현했으나 미국 입장에서는 전혀 대등한 관계는 아니었으며 일본 입장에서는 손조롭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고 미국과 대등한 관계로 파트너십을 형성했던 시기라 볼 수 있다.

이 시기까지의 외교정책은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강화, 아시아의 우호협력, 국제연합 외교 등 세 개의 중심 테마가 일본 외교의 기본방침이었다. 2001년 이후에는 글로벌 파트너십 2.0으로 표현되며, 초기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살펴보면 지역의 안전보장에 일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2001년 이후에는 진정한 글로벌 법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보다 다양화 한 안전보장상의 요구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졌다. 테러대책특별조치법(2001년), 이라크특별조치법(2003년), 해적대책법(2009년), 미국에 의한 리벨런스(센카쿠 열도의 국유화로 빚어진 사안·2012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결정(2014년)등을 들 수 있다. 일본 국회 설명회에서 사용하는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의 변화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면 안전보장환경이 얼마나 긴박해졌는지와 일본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로부터의 기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떠한 안전보장법제가 필요한지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로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침해에 대처,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고자 해도 좀처럼 불가능했던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여 공헌해 나갈 것인가, 헌법 9조 하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 등 세 가지 단면으로 앞으로의 법안 작업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베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에 관하여 안타깝게도 한국 외교부로부터 심히 유감이라는 코멘트를 받았으며 어찌할 도리가 없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총리가 외국 미디어도 있는 미국에서의 연설 중에 고노담화를 계승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제9회 동서대학교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 개최

5월 11일(월) 민석도서관 6층 다목적 세미나실에서 '제9회 동서대학교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가 개최되었다. 일본어학과 학생을 중심으로 원고 심사를 통과한 6명이 약 100명의 청중 앞에서 휴학, 일본어와의 만남, 적성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스피치 콘테스트에 참가한 6명의 학생들은 올해 1학기 초부터 수업 공강시간과 방과 후에 일본어학과 교수와 일본인 유학생들에게 조언을 받으면서 일본어 실력을 쌓아 왔다. 그중에서도 김소정 학생, 최성배 학생은 일본어학과 소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 콘테스

트를 통해 훌륭한 일본어 실력을 발휘하여 청중으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작년에 이어 올해 심사위원장을 맡은 국제교류기금의 모리타 마모루 일본어교육 어드바이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피치에 대해 솔직한 감상평과 "참가자 6명의 장점이 느껴지는 스피치였다. 앞으로 일본어 실력 향상이 기대된다"고 총평을 하였다.

콘테스트 종료 후에는 참가자 전원과 일본어 발음과 표현을 지도한 일본어학과 교수 등이 참가하여 그동안의 준비과정과 결과에 대해 위로와 격려를 하는 뒷풀이 시간을 가졌다.

우수상(일본어연구센터 소장상)에는 2014년 세월호 사건을 소재로 한 김소정 학생(테마: '잊어서는 안 된다'), 심사위원 특별상에는 자신의 일본유학 경험을 소재로 한 최성배 학생(테마: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이 뽑혔으며, 강리아 학생, 김나현 학생, 조아름 학생 3명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일본어연구센터 소장상)에는 2014년 세월호 사건을 소재로 한 김소정 학생(테마: '잊어서는 안 된다'), 심사위원 특별상에는 자신의 일본유학 경험을 소재로 한 최성배 학생(테마: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이 뽑혔으며, 강리아 학생, 김나현 학생, 조아름 학생 3명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 다이쇼대학 일본어 · 일본문화연수

3월 하순부터 한 학기 동안 일본 도쿄에 있는 다이쇼대학에서 열린 일본어 · 일본문화연수에 참가한 동서대 일본어학과 학생 16명이 7월 24일(금)에 귀국했다. 본 프로그램은 동서대와 다이쇼대 간의 국제교류협정이 체결된 2005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으로, 동서대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일본 대학에서 수업을 듣고, 취득한 학점은 졸업 학점으로 인정받는다.

학생들은 한국 대학과 수업 방식이 다른 일본 현지 수업, 캠퍼스 생활과 그리고 일본 생활을 통해 많은 일본인과 다양한 일본 문화를 경험하면서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배우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다이쇼대에서는 수업 외에도 동아리활동과 교류회 등을 통해 다이쇼대 학생들과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가부키 감상, 가마쿠라 탐방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다이쇼대 수업에 대해서 학생들은 "수업이 모두 일본어로 진행되어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일본어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발표에 대한 조언을 얻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일본 기업 방문과 일본인 학생들과의 공동 수업 등 일본 대학의 수업 방식이 좋았다"고 말했다.

본 프로그램 외에도 다이쇼대와는 매년 2명씩을 선발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동서대에서는 단기 한국어 · 한국문화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어학연수에서도 작년 겨울에 실시한 한국어 연수에 참여했던 다이쇼대 학생이 도쿄에서 동서대 학생들의 일본 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등 양 대학 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끼리의 네트워크 구축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 한일차세대학술포럼 제12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8월 22일(토), 23일(일) 양일간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에서 '한일차세대학술포럼 제12회 국제학술대회'(전체 테마: '우리(한일)는 서로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가 개최되었다.

올해 학술대회는 당초 6월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국내의 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으로 인해 8월로 연기되어 개최되었다. 개최 연기로 인해 참가자들의 참가 취소도 예상되었지만, 한일 그리고 중국 63개 대학에서 250명이 넘는 대학원생과 인술교수가 참가하는 등, 성황리에 대회를 마쳤다.

22일(토)에는 분과회, 개회식, 대학원생 공개 패널토론, 리셉션이 열렸으며, 23일(일)에는 조사여행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학술대회 관련 상세 내용은 다음 호 뉴스레터에 게재될 예정이다.

## 한일 교류 2천년,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동서대 국제학부 석좌교수 겸 일본연구센터 소장인 정구중 교수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양국 간의 2천년간 이어져 온 교류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새로운 한일관계의 미래를 설계해 나아가는 문화·예술·학계 등의 일본인 유식자 23명을 인터뷰한 저서를 출판하였다. 인터뷰에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배경 해설과 함께 과거 백제-일본 간 교류부터 최근의 한류 열풍과 역사 갈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양국의 교류가 쌓아 온 발자취를 되새기는 증언들을 실고 있다.

인터뷰에서는 서기 7세기 큐슈로 망명해 간 백제의 왕족 일가를 기려 백제촌



을 건설하고 축제를 계속하고 있는 남고촌(南郷村)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임진왜란 때 왜병으로 끌려가 조선의 도자기 기술과 문화를 일본에서 꽃피운 심수관, 이삼평 도공의 후예 등이 교류의 역사를 증언한다. 그리고 역사인식과 갈등을 넘어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자는 전 주한일본대사, 언론인, 대학 교수 등의 제언도 담고 있다.

4월 14일(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는 장제국 동서대 총장,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 원장, 공로명 동서대 석좌교수·전 외무장관, 유명한 한일포럼 회장·전 외통부장관을 비롯하여 250여명이 참석했다.

### 소장 동정 (4월~8월)

- 4/14 저서 '한일 교류 2천년,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출판기념회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 4/20 일한문화교류기금 오노 마사아키 이사장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문화예술교류 공연 협의(도쿄)
- 4/27 한양로타리클럽 초청 강연 '아베정권과 일본의 변화' (서울 플라자호텔)
- 5/19 일본 정부로부터의 서훈 전달식(주한일본대사 관저)
- 6/16 국립외교원 주최 '한일관계 학술대회' 패널 참석
- 6/19 KBS TV 심야토론 출연 '국교정상화 50년의 한일관계'
- 6/30 한일의원연맹과 공동주최로 '조선통신사 선린외교' 강연 및 기록영화 상영회(국회 헌정기념관)
- 7/27 게이오대 고바야시 요시아키 교수, 동아일보 배국인 도쿄지국장 등과 한일관계 전망 간담회(도쿄)
- 8/4 동아일보·인촌기념회 공동주최 제29회 인촌상 심사 (언론부문심사 위원장)
- 8/13 SBS TV 광복 70년 한일관계 토론회 출연
- 8/14 '한일관계 미래 제언' 와카미야 석좌교수와 동아일보 대담 (8월 18일자 게재)

### 방문자 (4월~8월)

#### 서울사무소

- 4/14 이연현 학봉장학재단 이사장 신임 인사
- 5/18 동아일보 국제부 허문명 부장, 성통기 차장 한일 수교 50년 기획 특집 협의차
- 6/24 이케하타 슈헤이 NHK 서울지국장 신임 인사
- 7/14 조희용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소장 신임 인사
- 7/22 Marc Knapper 주한미대사관 차석 대사
- 8/26 서승원 고려대 글로벌 일본연구원 원장 우메자와 아키마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차장 신임 인사
- 8/27 한중우 성곡언문문화재단 이사장 인촌상 협의
- 8/28 김재호 한일친선협회 중앙회 이사장 신임 인사

### 기증도서 (4월~7월)

- 4/10 한일협력위원회 『한일협력』夏, 2015년
- 4/23 리츠메이칸대학 코리아연구소 『코리아연구』제6호, 2015년
- 4/27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리뷰』제4권, 2015년
- 5/7 비교민속연구회 『비교민속연구』제29호, 2015년
- 5/14 도요대학 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년보』제49호, 2014년
- 6/15 오구라 기조 『일본의 험한파는 무엇을 주장하는가』제이앤씨, 2015년
- 6/19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일본학연구소 『일본학』제40집, 2015년
- 6/23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한림일본학』제26집, 2015년
- 6/29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스즈키 구니오 저 정실비 역, 『나는 왜 험한시위를 싫어하는가』, 제이앤씨, 2015년 외 1권
- 7/8 한일협력위원회 『한일협력』秋, 2015년

### 주요 일정 (3월~8월)

- 3/24 제54회 동서사랑방 (이원덕 국민대 교수·일본학연구소 소장 강연)
- 4/23 일본 다도 우라센케 15대 종가 센 겐시쓰 대종장 평화기원 한다식·강연회
- 4/30 제55회 동서사랑방 (가나스기 겐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강연)
- 5/11 제9회 동서대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
- 5/27 제56회 동서사랑방 (공로명 동서대 석좌교수·전 외무장관 강연)
- 6/29 제57회 동서사랑방(벵쇼 고로 주한일본대사 강연)
- 6/30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강연 및 기록영화 상영회
- 7/22 제58회 동서사랑방(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 원장 강연)
- 8/22~23 한일차세대학술포럼 제12회 국제학술대회 (서울 고려대 안암캠퍼스)
- 8/26 제59회 동서사랑방 특별강연 및 토론회 (와카미야 요시부미 아사히신문 전 주필·동서대 석좌교수, 심규선 동아일보 대기자·전 편집국장, 이와타니 시게오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사무국장 강연)